

< 論 說 >

# 合理的家畜病院運營

— 家畜病院革命論 —

鄭 益 鎔

卒直한 이야기 가 되려면 차라리 獸醫師革命論 이 라는 게 妥當 할런지 모르겠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論難되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獸醫師養成排出的 質量均衡問題 로 보더라도 좀더 알찬精選된 限界需要內에서의 養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런 家畜病院 革命論 따위의 요란한 소리가 안나오도록 이 땅 이分野의 樣相이 그야말로 하루빨리 近代化 되었으면 하는 念願에서부터 모든問題가 派生되기 때문이다.

영종한 比較일런지 모르나 그해도 2.88% 라는 엄청난 人口增加率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人醫나 藥師들의 過剩排出的은 우리의 경우와 相對的으로 볼때 樂觀의 이라 할 수 있다.

家畜增殖動態가 年年 몇 %의 增殖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의 事實上의 正確한 統計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내寡聞의 잘못이겠지 만 아무튼 增加한다 해도 앞서 말한 人口增加率에는 훨씬未達할 것이 뻔한 事實이 고 보면 우리의 경우는 醫師나 藥師양반들의 그것보다는 相對的으로 훨씬悲觀的이며 따라서 一層奮發하여 各方으로 우리의 合理的인 活路를 打開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안다 近者에 와서 “近代化”나 “體質改善”이니 하는 말들이 前에 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본다.

原始的經濟라 할가 前近代的要素가 近代的要素보다 그 二重構造에 있어 壓倒的으로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所謂後進國(나亦是 이놈의 後進國이라 할가)이 아예 못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개서 先進後進을 꼭 物質文明基準으로만 놓고 都賣金으로 넘겨 버리는 가하는 못마땅함이다. 일러서 우리는 低資本國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文化面까지 어찌하여 後進國의 굴레를 뒤집어 쳐야 하느냐 할가) 들 속에서 거의 革命的인 覺醒을 促求하는 말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간다.

네테르란트의 「부케」가 「東洋社會의 特質은 利潤追求의 거의 完全한 缺如라」고 하였는데 이말이 꼭 옳고 그르고 간에 일단 우리로서 생각해 볼만한 價値가 있는 말임엔 틀림이 없다.

하기야 「부케」가 들으면 無色할 程度로 남의 것이건

나라 것이건 다 구호광이 날고 기막든하는 投機追求水準이 굉장히 높은 분할도 요즈음 많이 눈에 띄이기는 하지만 오글날까지의 우리의 모든 分野가 特別 經濟性을 띤 모든 分野가 거의 不耗의 領域으로 放置되어 있다시피 하여 내려온 것은 事實이다.

우리들은 이런 싹을 진각 깨닫고 克服하는 賢明을 우리 것으로 할 줄 모르고 이제 겨우 被局의 危機가 우리 코앞에 다달았을 때 “近代化”에 拍車를 加하고 나섰다는 애달픈 느낌이다.

表題와는 若干 빛나간듯한 이런 長廣舌을 늘어놓은 理由인즉 이 땅의 前述한 總體的인 不合理속에 그중에서도 또 가장 뒤떨어진 構造에 등대고 입치레를 하고 있는 우리 臨床獸醫分野가 그 覺醒의 要求性에 있어서 祖國의 近代化作業과 더불어 實로 重大한 歷史的인 時點에 놓여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었던 때문이다.

우리가 家畜病院經營에 있어서 所謂東洋的이며 後進的이며 前近代的인 낡은 方式을 그야말로 革命的인 創意力과 意慾을 가지고 脫皮하여 家畜病院의 近代化 即 家畜病院經營의 合理化 및 科學化에 總力을 다 해야 할 時期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닥쳤다.

모든 分野가 近代化를 向해 總進軍할 때 우리만이 홀로 悠悠度日하고 있을수 없는 일이며 萬一 그러다가는 企業意慾에 있어 相對的인 東洋愚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犯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그러면 家畜病院의 合理的科學的經營이란 무엇인가 「부케」가 말한 利潤追求란 어디까지나 合理的인 利潤追求를 말하는 것일진만 家畜病院經營으로 우리가 얻을수 있는 合理的인 利潤追求를 어찌하면 極大化할수 있느냐 하는 問題에 歸結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利潤이란 말을 끄집어 내는데 對해 엉뚱하다고 나무랄분이 계실지 도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家畜病院이 무슨놈의 生産業이나 販賣業이나 그어느 것 도 아닌데 利潤이란 말이 成立될수 있느냐? 家畜病院이란 養畜家에 奉仕하는 하나의 聖業的인 技術供給源일 뿐이다 라고 反駁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全面近代化를 위한 資本들이 外資內資를 總網羅해서 안간힘이 다기울어질 側面에서 나타나다.

간지판에 나도떡하나 더먹겠다고 법석을 떨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關係當局者들에게 부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家畜病院施設의 近代化를 위한 投融資措置를 단 한번만이라도 실속있게 果敢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소원이다.

그러자면 于先 施設近代化 基準設定을 위한 어떤 모델케이스와 計數的인 設計가 必要할 것이다.

그리하여 總需要資金의 테두리 내에서, 自體資金融通 可能性의 全般的인 水準을 參酌하여 一個病院當의 融資額을 決定짓는 方向으로 取扱되어 주었으면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策定된 滿足할만한 資金이 確保되더라도 資金管理를 하는 院長任들의 “아이디어”가 貧困할 때는 所期의 目的達成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인즉 資金의 重點的인 投入方向과 節次를 다른 模範的인 族設들의 比較參觀에 依해 自體實情에 알맞도록 調整設定해야 할 것이다.

이에는 綜合的인 經營眼目이 必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大韓獸醫師會나 地方獸醫師會는 이런 경우의 그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뱅크”가 되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럼 施設規模는 大概어떤 程度야야 하겠는가

그야 그地域의 條件에 따라 여러 格差가 있을 수 있는 問題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研究檢討할려면 相當히 긴 글이 되어야겠기에 此後로 머무기로 하고 最惡의 경우 서울과 같은 都市에서는(그것도 都心地와 변두리와 의 差는 있겠으나) 看板하나 제대로 밋있게 달지 못한 취구멍과 같은 面積의 그것도 內部에 衛生的感覺을 풍겨줄만한 색칠하나를 달고 응당 갖추어져 있어야 할 기나기재약품은 없는게 있는 것보다 더 많고 운동 거미줄과 먼지가 支配를 하고 있는 그런 家畜病院은 없어져야겠다.

農村에 있는 家畜病院들에서는 室內施設도 重要하지만 大多數의 경우 雨天下에서도 手術을 할 수 있을 만한 堅固한 保定틀하나가 아쉬운게 아직도 많다.

飼料가게 옆의 취구멍만한 방안에 退色한 看板을 달고 있던 往年의 그것과 類似한 家畜病院은 지금쯤 다 없어졌는지

아무튼 關係當局에서도 前과달리 이 施設基準에 對해 相當히 嚴格한 措置를 取하고 있지만 아직도 該當市郡에서 그 開設申告書가 施設未達の 理由로 返戻된 家畜病院의 看板이 施設基準쯤아랑곳 없다는 뜻이 尙存해 있는 것을 본다.

밀천을 적게 드러서 많은 利를 보자는 건 벌써 太古적 이야기다.

구태여 상스러운 말을 빌린다면 「돈농고 돈먹기」란 말도 있지 않은가.

다음에 理論 및 技術姿勢의 非進取性인데 勿論 우리 大部分의 臨床獸醫師들이 이면에 있어서 매우 熱誠의이며 講習會나 세미나 活動等에서 봐도 年年히 改善되어 가는 徵兆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唯一한 機關誌인 “獸醫界”誌가 모든 會員에게 充分히 熟讀되고 있지 않으며 새 獸醫良書 紹介 斡旋에 달갑지 않은 反應이며 從前의 臨床技術에 對한 不斷한 研究改善의 不足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亦是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進取性을 더 發揮해야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쯤은 是正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甚한 例이기는 하나 診療簿를 쓰지 않고 恰似 구멍가개의 外上 賣出帳簿처럼 놓은 데도 있었는데 記錄한다 해도 自身의 臨床記錄을 통해 貴重한 經驗을 피살리고 이에 改善을 加해 나가는 系統的인 새 技術開發에 덜이 될 수 있을 程度로 着實한 內容의 診療簿記錄을 해 나가는 분이 果然 臨床獸醫全員の 몇 %나 될 것인가.

이러한 理論技術面에 있어서의 停滯性의 發露는 또 다른 面에서도 볼 수 있으니 벌써 몇 年前부터 목이 쉬도록 새 臨床經驗의 “獸醫界”誌에의 投稿를 獎勵하고 있건만 이것이 우금껏 尙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技術이 더 나으나 못하나간에 우선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慣例的인 臨床收入은 別다른 變動이 없다는 安適한 생각을 견어치워야 한다.

安適은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落後와 敗亡을 招來하기 마련이다.

이밖에 買入 賣出過程에서의 經濟性追求의 無關心이 라던가 顧客增大를 꾀하기 위한 諸 RP 및 一미스 活動의 貧弱等은 例示하면 大小로 限이 없을 것이므로 몇 가지만 말해도 器材藥品等의 買入에 있어 團體割引 購買를 한다면가 보다 効率의이며 廉價인 即 經濟性이 豊富한 代用藥品處方의 研究라던가 하는 問題에 不斷한 關心이 있어야 할 것이다.

投藥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經濟性을 된 動物相對라 는 前提下에서 어떻게 하면 雙方이다 價格面에서나 治療成果面에서 보다 効率의이겠는가 敏感한 經濟的인 打算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들은바르는 어떤분은 急速完治萬能으로 무작정 高價

反應하기 때문에 實用化되지 않았다. 平戶(1962)는 Tp凍結融解抗原을 使用하여 豚血清의 沈降反應을 檢討한 結果 本反應陽性血清은 DT CFT HA等과 平行해서 陽性을 나타내나 그 出現時期와 他의 反應에 比해서 늦으며 더욱이 感染初期에 是 摘發이 힘든다고 한다.

### 豫 防

先天的 感染에는 母體胎盤感染 後天的 感染에 對해서는 不確實한 點이 많다. 發病中の 尿糞 乳汁分泌物에서 排泄하기 때문에 寄生虫性生活環의 庶斷 即 環境을 恒常 清潔이 하며 消毒을 하고 榮養이 좋은 飼料로서 健康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Tp 症의 Tp虫의 生活環은 解明이 充分치 않으며 媒介體를 含有한 感染經路가 不充分하기 때문에 豫防에도 困難한 點이 많다.

### 治 療

實驗動物에 있어서 本症의 治療에 有效한 藥劑로서 다음의 들 수 있는 藥이 있다. 그러나 人과 家畜의 治療效果는 아직 確實치 않다.

#### Salfonamide系

Sabin及 warren(1941) 처음으로 Salfonamide가 實驗 Mice의 効力이 있다고 報告하였다. 實驗結果로서 Sulfonepyrazine(피라징) Sulfamerazine(메라징) Sulfadiazine(디아징) 등이 効力이 있다고 한다.

Salfonamide系의 Tp에 對한 作用機序는 即 파라(P-amino benzoic acid) 아미노 安息香酸은 發育素인 葉酸의 構造에 一部를 가지고 있으나

Sulfonamid系는 Paraamino 安息香酸과 構造上 類似하며 後者가 葉酸에 들어가는 것을 阻止함으로 Tp虫의 發育을 抑制한다.

#### 2.4 지아미노피리미징(diamino Pyrimidine)

EyLes(1952) 本系에 屬하는 Pyrimethamine (2.4 diamino 5-P-chlorophenyl 6 ethyl pyrimidine (商名 Darprin)이 Mice 實驗에 依해서 本症에 効力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本劑는 貧血 其他 副作用이 있다고 한다. 豚 1日 5~510mg/1kg 주면 效果가 있다 한다. 本藥의 治療는 人에 對해서는 不適當하고 不完全治療는 Tp虫을 慢性化시킨다. 그러나 Sulf劑와 併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 相乘作用으로서 單獨作用때에 比해 6倍以上에 達한다고 한다. 그러나 慢性感染症에 Cyst에는 效果가 없고 또 宿主에 따라 多少 差가 있다.

#### 수루황劑(Sulfone)

수루황劑中(Sulfone) 4.4디아미노디페닐루스루황(diamino diphenyl sulfone)이 效果가 있으나 毒性이 強하다.

#### 抗生物質

구로로메트라 사이클링(Aureomycine Spiramycine Chlortetracycline)에 效果를 보며 Terramycin 페트라사이클링(Tetracycline) 구로로마이세친(Chloromycetin)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等 效果가 있다고 한다. 本症의 治療法에 對해서는 아직 實驗途上이며 cyst를 가지는 慢性感染의 治療及 毒性에 對해서는 今後의 研究宿題이다. <筆者=家畜衛生研究所>

-( 86 頁에서 계속 )-

藥處方을 信條로 하는 모양이나 그다지 普遍的인 方法은 못될 줄로안다.

그리고 또한 한걸음더 나아가 畜主의 心理의 效果에도 相當히 神經을 많이기우려야 민한다

렛밀이 번번히 붙은 原包裝藥品을 그대로 준다던지 하는 일은 지금쯤은 좀체로 볼수 없겠지만 하여튼 能熟한 處方과 再包裝은 빼놓을 수 없는 經營手段이다

最近어떤분은 마이신 같은 것도 약봉지에 싸지 않고 캡슐"에 다 넣어 준다는 말을들 려주었다.

PR나 써-비스에 있어서도 어떤분은 市郡關係職員이나 面畜産指導員들을 完全히 등지고 일하는 것을 더러 본다.

官權에 阿附나하고 있으면서 그 그늘 밑에서 적당히 먹고 살라는 비루한 生活姿勢의 勸誘가 아니라 좀더

積極인 經營姿勢에로 進出하자는 말이다.

그분들에겐 大體히 棟樑스러운 말이지만 그분들이야말로 가장중고 손쉬운 既存 PR루-트인메 여째서 그들과 등지고 있는가 말이다 어떤분은 年例의으로 或은 一齊防疫注射實施나 僻地巡迴診療時등을 利用해서 油印物等으로 積極인 PR活動을 하고있는 것을 가끔본다.

그분들은 從前에 其同一 地域에서 걸우지 못했던 다른 臨床獸醫師의 絶望의 壁을 完全히 깨트려놓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經營頭腦는 이렇게자꾸만 높은 領域으로 昇세없이 하나하나 發展을 거듭해 나가야할 것이다.

바야흐로 全般的인 近代化의 물결과 더불어 家畜病院 革命論을 提起할 重大한 局面에 處했다고 보는 것이다.

<筆者=本誌編輯委員>